



세계는 날로 새롭다

長髮時代の「終末以後」生活

安 炳 茂

△神學・韓國神學大學教授▽

의식하지 못하는 때 있다. 機械化된 생활의 安樂과 편리를 위해서 그러한 개성과 主體性과 자유를 팔아 버린 것이다. 새로운 社會哲學은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을 자각하게 하고 그 회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社會構造를 개척한 靑靑眞眞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社會의 近代化는 곧 産業化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된 발전된 産業社會의 문제들은 그대로 우리 사회 문제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전연 우리의 상관 없는 남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産業社會의 문턱에서 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싹이 이미 트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産業化는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이다. 우리의 현실을 절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접근과 産業社會의 문제는 우리 社會 哲學徒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켈케골」은 그의 哲學과 「해」의 觀念哲學을 대조하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觀念의 體系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實存이 문제라고 했었다. 그런데 社會哲學徒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의 고독하고 形而上學的인 實存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歷史의 이면서 社會的인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긴박하고 숙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해서 架空的인 관념이나 고독한 實存에 안주할 수가 없다.

새로운 氣運

이時代를 急變한다는 것으로 특징짓는다. 그런데 宗教

界(특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思想的인 潮流가 너무나 급



「템포」로 달라진다. 불과 10년 이내의 神學的인 동향은 下向의인 추세를 계속했다. 1963년에 영국의 감독 「로빈슨」의 「Honest to God」(神에게 솔직한)는 神學的 思考를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大衆의 세계에로 이끌어 내림으로 세계에 큰波紋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西歐 「크리스천」들의 현실생활에서 이미 死藏化된 再來的인 종교 관념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발을 밟고서 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이 미 폐물화된 종교적 在庫品들을 觀念에서 처리해 버리라는 것이었다. 그후 2元的인 사고나 言語의 극복운동으로써 聖俗의 구별을 철회하는 이른바 世俗化神學, 과학 기술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려는 「테크놀로지」 또는 「都市」神學이 제창되거나 마침내 「神의 죽음의 신학」이라는主張이 대두해서 宗教의 안과 밖을 떠들썩하

게 했다. 이로써 종교의 세계는 이미 지나 갔다고 보고 소위 기독교 후기 시대라는 말을 기독교도의 이름으로 공언하기에 이르므로 下向의 기류는 완전히 着陸한 것으로 되어 宗教는 남은 시대의 유물 또는 紀念碑로 歷史에 남을성 실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그 자체가 반드시 새 주장이 아니고 이미 神學自體에서 많이 論議되었던 「이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事件이 된 것은 그것이 大衆化의 물질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어제 같았는데 그 기류는 갑자기 逆轉되어 마치 그런 風潮의 反擊과도 같이 새로운 氣運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현상으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歷史에 대한 새로운 파악운동이다. 과거에는 역사를 2元的으로 파악하여 一般 歷史와 특수 역사로 구별하고 일반 역사에 특수 역사가 수시로 개입할 때 종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석했거나 아니면 自然法則의 영역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만이 있다는 소위 歷史主義가 있었는데 대해서 역사는 하나 뿐이나 그것은 결코 自然法則으로 1元化되지 않고 「偶然的事件」도 그 안에 포함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종교적 사건들도 엄격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으로써 종교적 사건들은 一般歷史의 틀밖에서 그 속에 단속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未來를 提示하는 指針이라고 보게 됐다. 그런 주장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사건에 초점을 두게 됐다. 이 부활사건은 소위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은 2천년 전에 한번 생긴, 人類歷史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人間歷史의 미래를 앞당겨 보여준 사건

서로 만나면 그들은 「헬로」 대신에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한다. 모두가 「크리스트」안의 형제임을 몸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이라고 주장한다.

革命的 神學

이 주장은 「聖書」의 목적론적 歷史觀이 새로운 단상으로 재등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하나는人間과 그 歷史는 「아직도 아닌實在」 즉 이제 될 實在在는 것

이며 따라서 인간은 미래에의 희망에서 현재를 사는 存在라는 것이며, 둘째는 따라서 오늘날의 질서나 價値觀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상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써 보던 希望의 神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참여의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政治神學 또는 革命的 神學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싸움의 대상은 이제을 새 時代를 가로막은 絕對主義나 絕對化된 固定秩序나 그런 것들은 모두 未來 차단적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神學的 주장은 西歐의 「스튜던트·파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學生運動은 절대화된 現實否定이라는 측면에서는 「베오·마르크시스트」의 영향아래 있는 운동과 상통된다. 그러나 하나는 憎惡, 하나는 사랑을 그 방법으로 한다는 데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는 소위 「에콜로지」(生態學)의 神學이다. 기술과학에 대한 樂觀論이 휩쓸 것이 이제 같은데 세계는 갑자기 技術科學이 가져온 세계의 위기를 부르짖게 됐다. 사람들은 기술과학의 발달을 인간의 손과 발의延長, 아니 인간의 伸張이라고 보고 이제 바야흐로 인간이라는 動物이 명실공히 宇宙의 主人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神學은 그것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해석했는데 지금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손으로 된 기술 문명이

인간이라는 종족은 물론 地球의 종말을 초래하게 될음을 인지하므로 벌써 세계의 終末의 挽歌를 부르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게 됐다. 이에 인간또는 歷史의 구원은 神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다시 폭발적으로 대두됨과 동시에 다시 「聖書」에 있는 終末論이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앞에 宗教人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래의 宗教(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켜서 인간의 구원만을 주장한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이 세계와 유리돼 있지 않다. 모든 實在은 關係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生態學的 구원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의 오염만이 아니라 자연의 오염도 인간의 구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종교행위는 과거에 구분한 宗教領域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연과 세계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



「지저스 러브스 유」의
「히피」靈運動者들

루어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목하게 된 것은 東洋의 思想考의 세계다. 西歐의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分離시킬 뿐 아니라 인간 자체도 肉體와 靈으로 구분하는 소위 分離、克服主義였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征服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酷使하는 동안 자연이 그本來의 모습을 잃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 均衡을 잃게 되므로 스스로의 멸망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主客圖式的 사고는 인간의 分裂을 초래해서 현실을 人爲的으로 분단해 버렸다. 이에 대해서 東洋의 生命의 智慧는 모든 것을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전통을 가졌다. 자연은 인간이 征服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이웃이며 그 집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의 融合은 관계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삶의 길은 자연의 征服이 아니라 조화이며 和解이다. 그러므로 東洋人은 집을 하나 지을 때에도 자연에 의지해

사 하며 또 그것과와 和解를 위해서 祭를 지낸다. 이런 것은 나무하나를 자르거나 땅을 개간하거나 심지어 무덤을 팔 때까지도 행하는 原初的 生態學的 배려다.

맨발과 長髮의 絶叫

그 뿐만 아니다. 東洋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봄으로써 마치 對話와 共存의 實在처럼 대해 왔다. 그것이 자연친가에서 自然宗教에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東洋은 인간을 고립된 個人으로 보지 않고 家族의 一員으로 본다. 「나」 個人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子孫이다. 이것은 個人主義의 측면에서 볼 때 主體性이 없는 것으로 비난 당했으나 세계 전체성, 즉 生態學的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옳은 삶의 지혜다. 이것은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봄으로써 순전히 精神的으로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西歐 기

독교의 추상성에 비해서 가장 당에 발을 디딘 인간 共存의 原理를 제시한 것이다. 또는 東洋은 인간을 2元的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언제나 全體로서 본다. 그러므로 西歐에서처럼 精神 또는 理性 일반도의 次元에 화를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정신은 몸의 혼연과 더불어 어」가 그 혼연의 원리로 되어 있다. 이것도 生態學的인 지혜다. 그러므로 東洋의 禪이나 「요가」 같은 것이 새로운 자광을 받게 되며 기독교 안에서 대하면 東洋의 生命의 자세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意味를 찾게 됐다.

또 하나의 현상— 이것은 어쩌면 오늘의 종교계에서 가장 위 聖靈運動이라는 데 뒤러 안에 서 일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종교현상이다. 이 운동은 「히피」운동의 本營인 美國에 일어나고 있다. 저들은 그 외의 모습으로 볼 때

오늘의 宗教현상은 歷史를 自然法則에
예속된 自律的 實在라고 보지않고 하
나님이 이끈다는 思想이다.

「히피」와 비슷하기 때문에 「히피」운동의 一部로 간주해 버리려고 했었다. 저들은 우선 그 모습에서 볼 때 反文化的이다. 아무런 의복이든 걸치고 長髮에 맨발을 하고 의복, 목거리, 손목시계, 단추 등에 저들의 주장을 새달고 거리를 활보하며 기득권을 비웃어 自己 頂들을 뒤흔쳐 나오고 손에 樂器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등 「히피」족과 흡사하다. 그러나 저들의 信條는 전혀 다르다. 저들은 性의 自由나 幻覺劑 따위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聖書와 十誠命의 「모랄」을 내세운다. 저들은 無條件의 自由나 남은 世代에 대한 거부에 최후 목적치로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終末, 하나님 의 審判과 동시에 現存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지금의 世代를 저들의 宣敎의 대상으로 한다. 저들은 神學운동이 아니라 생활운동을 몸으로 實現한다. 그러므로 서로 만나면 「헬로」 대신 「지저스·피프스·

유」(예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兄弟愛를 實際行動으로 보여 주며 그 안에서 피부색이나 信仰告白의 차에서 오는 거리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소위 聖靈運動에서 처럼 신비세계에서 자기도 취하고 있지 않고, 저들은 이 세계를 위해서 그들의 신념을 밖으로 확대해 나간다. 남을 위한 運動으로 곳곳에 「키피」집과 「나이트」클럽을 내고 그런 것을 自治的으로 운영하여 「奉化」를 통한 진도를 한다. 저들의 발행하는 新聞만 50종이 넘는데 그 중에는 40만부를 상회하는 것도 있으며 그 「그름」 중에는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4백50개의 학교에 幹部를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름」은 독자적으로 2천5백校에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행동대만 해도 백만을 넘는다고 하며 저들은 이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1976년까지는 美國全體를 1980년까지는 세계 전체를 福音化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들의 운동은 既成기독교의 의자에서 시작 되었기에 벌써 反敎權의이며 저들의 주장은 科學技術과 자본주의가 걸락된 美國의 既成社會에의 도전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투쟁을 「스튜던트·파워」처럼 暴力으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 사랑과 平和로써 해나간다.

世界終末의 警告

이상의 세 가지 움직임에서 어떤 통일점들을 찾아 본다면 대체로 다음의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既成社會秩序에 대한 否定이다. 기성 사회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西歐文明을 뜻한다. 서구문명을 기독교적 문명이라고 하나 실은 기독교를 변질시킴으로써 형성된 문명이



다. 그러므로 그 終着地는 物質主義、實利主義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文明을 이어 받았다는 서구 사회가 낳은 것은 資本主義 아니면 共產主義다. 즉 들은 똑같이 물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물질문명의 항거다.

물체로 이것은 동시에 理性主義、科學主義에의 反抗이다. 이미 理性主義時代는 지나갔다. 이것은 바로 未來學、生態學者들이 보는 現代에 대한 진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科學이 技術과 야합하고 그것이 實利主義와 결합함으로써 그 極致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非理性의 시대는 바로 理性主義가 낳은 자식이다. 까닭은 理性主義는 理性絶對信仰을 낳았기 때문에 관제성을 잃고 마침내 자기 「몬트를」의 힘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세계는 終末論의 이라는 것이 다. 終末論이라는 것은 위의 두 공통점과 물론 관련이 있다.

이 낳은 世代는 끝나야 한다. 그것은 아무런 발전한다고 해도 거기서 인간의 구원의 길은 없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 끝장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들은 낳은 것에 서의 脫出、따라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고착된 絶對主義와의 도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世界 終末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세계, 새로운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저들은 지금의 질서에 맞도록 사는 것이 참된 倫理行為가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것을 참 삶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의 질서를 거슬러 간다.

비제, 위의 현상의 거점은 「히브리」思想이다. 西歐文明을 「텔메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틀바구니에서 형성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서구 문명은 이 두 思想系列의 決戰場과도 같았다. 그래서 이 두 思潮가 西歐歷史에서 일치라 했치라 했으며 때로는 同床異夢의 外的 조화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理性主義、科學主義—기술 문명은 결국 「텔메니즘」의 勝利를 뜻한다(이와 正反論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날의 종교 현상은 「히브리」主義의 再起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역사를 윤리적으로 보지 않고 目的論적으로 본다는 점, 따라서 歷史로는 인간을 對立的으로 보지 않고 統體的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이 역사를 自然法則에 예속된 自律的 實在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思想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支配하는 것은 法則이 아니라 意志라는 사상이다.